

연구노트

DE ANIMA에 나타나는 ARISTOTELES의 人格論

김 상 균

가톨릭대학교 신학부

成熟人格의特質은人間다운 점 때문에 心理學者들에게 主要課題가 되어왔다. 西歐 人格論의 主要 內容인 自立性, 完全性, 不讓渡性이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著書 (De Anima)에 나온다. (De Anima)는 西歐의 가장 오래된 體系의 心理學書라 할 수 있는데, 內容은 아래와 같다. 人間의 魂은 生命體의 原理이므로 그 研究는 가장 價値있는 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單一하고 普遍의인 方法論의 否足으로 그 作業은 아주 힘들다. 魂은 自立性, 完全性, 不讓渡性의 傾向을 띠운다. 感情과 思考 같은 魂의 作用들은 肉體를 통해 入出力 되며, 肉體없이 存在할 수 없다. 心理學者의 研究 方法은 生理心理學의 基礎를 必要로 한다.

西歐思想에 나타나는 人格論

現代人들은 機械萬能主義-官僚主義에 의한 人間 疎外, 個人을 社會構成의 한 部分品으로 밖에 보지 않으려는 全體主義의 橫暴, 두차례에 걸친 世界大戰으로 인한 人間性의 失墮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자주 人間이란 무엇인가를 되새겨 왔다.

일군의 心理學者이 人間이 具體적으로 人間다운 점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目的으로 成熟人格의 特質을 研究한 結果, 대개 비슷하나 學者마다 強調하는 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研究는 人格 研究에 큰 貢獻을 하여서 成熟人格 特質의 樣相을 밝혀주고 健全 人格特質의 指標를 세울 수 있는 可能性을 提示하며, 人格의 尊嚴性 回復에도 큰 關心과 貢獻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金聖泰(1982)는 그의 研究들을 통해서 成熟人格의 標準化된 資料들을 얻을 수 있는 各層의 여러學者들이 提示한 成熟人格의 特質들을 要素의 方法으로 分析해 본 結果 어떤 共通의인 特質들로 分類해서 묶을 수 있었고 그것들을 좀더 核心이 되는 一群의 根源 特質들로 묶을 수 있었다. 그 內容들은 대개 1. 타고난 可能性을 實現하고 主體感을 가지며 責任과 役割成就를 充分히 完遂함. 2. 現實을 客觀적으로 認知하고 受容함. 3. 사랑과 理解와 受容의인 態度에 의한 따뜻한 對人關係. 4. 確固한 人生目標과 統一된 世界觀을 갖는 自主의 人間. 5. 問題에 挑戰하고 滿足하며 熱中하는 問題中心의 人間 등이었다.

人格(personality, personlichkeit)이라는 概念의 語源

은 본래 희랍어의 *προσωπον*이라는單語에서由來했다고 한다. 이 말은 처음에 희랍에서 演劇을 할 때 쓰이는 假面을 意味하였으며 오늘 通用되는 뜻의 人格的 意味를 갖추게 된 것은 로마시대부터였다. 人格의 定義로서 西歐에 나타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人格論에 있어서 자주 引用되며 그 후 西歐사람에 影響을 미치는 根源的인 것은 Boethius(470~525)의 定義이다. 그는 “人格은 理性的 本性的 個體的 實體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人格의 存在論的 要素로서, 〈個體的 實體 혹은 그 全體性〉과 〈理性的 本性〉을 要求하고 있다(정의채, 1975).

近代思想에서 말하는 人格은 주로 自己意識, 또는 한 個人이 나타내는 行動特質의 固定된 樣式과 같은 것이다. 이런 傾向은 Hume의 人格論에서 보듯 人格의 實體性·獨立性을 否定하고 人格을 知覺의 한몸음으로 볼 可能性이 커진다.

實用主義적 思想은 人格을 〈社會的인 技術 또는 능숙함〉으로 보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個人的 人格이 여러가지로 차이 있는 環境안에서 積極的으로 反應할 수 있는 效能性에 의해서 評價된다(Hall & Lindzey, 1978). W.Stern은 具體的인 人間外的 集團일지라도 多様な 統一性을 表示하면 人格體라고 하였고 어떤 경우는 人格(personality)와 性格(character)을 區別없이 쓰기도 하였다(Stern, 1938).

人格이라는 單語가 人間の 品位를 뜻하기 시작한 것이 로마시대였고 그 概念이 具體的으로 形成되기 시작한 것이 Boethius에서부터였으므로 Aristoteles에게서 人格論을 찾는다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人格이라는 用語를 使用하지는 않았어도 참다운 人間の 品位를 찾으려고 努力했고 人格이라는 概念을 具體的으로 定義하지는 않았어도 人間이 人間다운 要素가 무엇인가를 끝까지 밝히려 했던 執念이 있었다. 그 痕迹이 De Anima에서 잘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De Anima의 궁극目的이 動物과 꼭 같은 肉體를 지나면서도 人間이 人間다운 점이 무엇이며, 그 原因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Aristoteles의 많은 著書 중 特別히 이 책이 重要的 理由는 이 著書가 가장 오래된 體系的인 心理學 著書로 評價되고 있는 점에서 이기도 하고, 또 다른 理由는 自然科學者이며 哲學者인 Aristoteles가 이 著書를 통해서 人間の 肉體的인 面과 精神

的인 面을 統合시키고, 이해하려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이 著書안에 그의 自然科學的인 知識과 哲學的인 知識 전부를 쏟아 넣었다고 생각된다.

De Anima 1권의 1장에서는 精神과 肉體를 뉘 수 없는 不可分의 關係가 經驗的이고 科學的이며 心理學的인 側面에서 다루어지고, De Anima 2권 2장에서는 肉體와는 區分되는 人間정신의 特性과 本質이 理論的이고 思辨的이며 哲學的인 觀點에서 다루어진 要素가 人間魂(Anima)의 心理學的 要素와 哲學的 要素를 통해 잘 說明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De Anima의 哲學的 背景

희랍思想은 대개 기원전 6세기경 「에게」(Eage)해를 中心으로 한 소아세아의 西쪽끝의 殖民地에서 發生하였다가 이것이 희랍본토로 傳來되어 약 3세기간 全盛期를 맞이한 思想이다. 學者들은 哲學과 科學이 統一된 組織的인 學問의 形態를 얻기 위해 努力하였다. Aristoteles는 희랍思想家들 중에 희랍哲學을 統一하여 集大盛한 사람이다. 그는 당시 問題되고 또 研究되었던 거의 모든 分野를 募集하고 그 問題를 解決할 새로운 方法論을 發見하고 問題의 核心들을 秩序整然하게 分析하고 論理性있게 綜合하였다. 그는 망원경이 없어도 훌륭한 天文學者이고 實驗室을 갖지 않았어도 實驗室을 갖춘 現代人 못지않은 生物學者였으며, 測定裝置가 없어도 그만큼 嚴格한 生理學者와 心理學者의 面貌를 갖추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歷史學, 哲學, 倫理學, 文學, 法學, 詩學, 演劇學, 美學 등 각 分野의 學問에 始原을 이룬 碩學이었다. 물론 그가 언급했던 解答들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有效하지 않은 部分들도 否定할 수는 없으나 그가 提起했던 問題點들과 方法論들이 오늘에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있다.

그의 思想은 알게 모르게 西歐思想을 形成해왔으며 西歐 碩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다. Dante는 그를 〈碩學들의 스승〉(the master of those that knows)이라고 말하고 있다(kaplan, 1960).

당대의 思想家들의 心理學說은 그들의 哲學思想과 相通하는 것이므로 우선 그들의 哲學체계를 理解할 必要가 있다. 그들이 問題로 한 것은 한마디로 (變化)에 있었으며 變化문제를 통일적으로 說明할 수 있는 原理

를 研究하는데 있었다.

우리는 經驗을 통해서 事物의 끊임없는 變化를 體驗하는데, 變化는 事物이 한 狀態에서 다른 狀態에로 넘어가는 과정이며 經驗의 事物의 本質의 特徵이다. 이 變化問題에 있어서 첫째 Parmenides의 계열이 있다. Parmenides는 有의 經驗의 多數性과 變化를 否定하고 有는 결국 絶對적으로 하나 뿐이며 不變의이라고 하였다(Jaeger, 1962).

두번째로 Herakleitos의 계열이 있다. Herakleitos는 고정된 存在라기보다는 運動에 重置하여 實在을 變化와 運動으로 보았다. 實在은 固定되어 있거나 決定된 것이 아니고 항상 다른 것이 되려는 傾向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固定된 存在는 없고 있는 것은 變化뿐이다.

變化를 否定하고 오로지 有는 不變點이라는 Parmenides의 極端論을 否定하고, 變化·多數화된 世界를 說明해 보려는 시도로 Platon은 비유를 두가지로 解析했다. 즉 有에 絶對적으로 對立되는 無 즉 絶對의 非有와 (A는 學生이지 先生이 아니다)와 같은 非有 즉 相對의 非有를 말한다. 그러므로 Parmenides가 主張한 바와 같이 非有를 絶對의 非有로만 본다면 變化에 대한 說明이 不可能해지지만 非有를 相對의 非有라는 形式으로 본다면 變化에 대한 說明이 좀 더 可能해지는 것이다. Aristoteles는 經驗에 입각하여 有를 그 內部構造에서 說明하므로 Platon의 學說을 完成한다. 그는 有를 現實有와 可能有로 나누는데 Platon과 Aristoteles와의 큰 差異點은 Platon은 非有에 重點을 두어 變化를 說明하는데 반해 Aristoteles는 有에 重點을 두어 變化를 說明하는 점이다. Aristoteles에 의하면 有와 變化의 概念은 對立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矛盾的으로 對立되는 概念은 아니다. 變化하는 有를 單純存在로 認定하지 않고 現實態와 可能態로 合成된 것으로 理解할 때 Parmenides로 하여금 變化를 拒否하고 Herakleitos로 하여금 固定된 存在를 拒否케 한 二律背反은 解決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Aristoteles에 의한 모든 變化에는 다음의 세 要素가 있다. 變化의 始點(terminus a quo), 變化의 終點(terminus ad guen), 變化의 始點에서 終點으로 가는 事物主體(subjectum)가 그것이다. 하나가 다른 것이 된다는 것 즉 變化는 事物들의 單純한 連續이 아니고 어

떤 規定 혹은 어떤 狀態를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지 않던 새로운 規定 혹은 새로운 狀態를 갖는 것이다. 이때 새로된 것이나 새로 나타나는 것은 有의 現實態이고 이런 規定을 받아들이는 收容的인 狀態를 有의 可能態라 한다. 따라서 變化할 수 있는 有 즉 有限有는 可能態와 現實態로 合成되어 있다. 어떤 것이 된다는 것은 有의 可能態에서 現實態로 實現化되는 것을 意味한다. 즉 變化는 可能態에서 現實態로의 移行을 意味한다. 이런 現實態와 可能態의 概念은 처음에 感覺的에서 變化世界에서 얻은 것이지만 이 概念은 變化하는 모든 有에 通用될 性質의 것이므로 重要하다. 따라서 變化를 說明하려는 現實態와 可能態의 概念을 理解하지 못하고는 Aristoteles의 思想全體의 흐름을 理解할 수 없으며 그는 그의 이 獨特한 方法論을 De Anima에서도 展開하고 있다.

De Anima의 心理學 特徵

De Anima는 體系的으로 心理學을 著述한 最初의 著書로 Aristoteles의 作品이다. 지금의 心理學이 取扱하는 거의 비슷한 問題들을 秩序있게 論述하여 心理學을 組織의이고 基礎的인 科學으로 成立시켰다. 그는 De Anima의 續編이라 할 수 있는 Parva Naturalis를 著述하였는데 前者는 心理學의 方法論과 重要性, 心理學特性을 지닌 魂의 概念, 心理學이 지니는 어려움, 人間 心理와 動物心理의 根本的인 差異, 心理學이 다루는 領域, 哲學과의 關係 등 心理學의 一般論을 取扱하였고, 後者(Parva Naturalis)는 感覺, 記憶, 睡眠, 覺醒, 色彩, 꿈, 靑年과 老年, 有機體運動壽命과 生死, 呼吸 등 心理學의 特殊論을 取扱하였다(Jaeger, 1962).

Aristoteles에 의하면 心理學은 自然科學의 一部分이다. 그에게 心理學은 心理 즉 生命의 原理에 관한 學問으로 그 目的은 心理의 本性과 그것에 속하는 모든 對象들을 發見하여 確實히 理解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研究方法는 客觀的인 觀察에서 出發해야하며 經驗的이고 生理心理學的인 基礎를 갖어야 한다. 抽象的이고 觀念的인 說明만으로는 不足하다. 그의 自然科學의 背景을 理解하는데 있어 가장 重要한 것은 그가 이오니아인(Ionian)이었다는 점이다. 이오니아인들은 회람종족들 중 한 종족으로서, 그들은 Miletus學院에서

自然哲學을 創始했으며, 自然 現象과 그에 대한 說明에 沒頭해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系列의 學派들과는 區別된다. 여기서 唯心哲學의 대가들 중 유일하게 아테네出身자인 Socrates와 Platon에 의해 새로운 學風이 唯心사상에 도입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自然現象의 說明보다는 人間자체의 運命과 삶을 일깨워준 것이다. Aristoteles는 이 두 影響을 다 받았다. 그러나 그는 始終一貫 이오니아인으로 살았으며, 自然現象에 대한 예민한 觀察者였고 아무것도 그의 關心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Ross, 1955).

Aristoteles의 心理學은 Platon의 唯心論에 關心을 가진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그는 Platon이 輕視하였던 經驗의이고 觀察적인 면을 強調하였다. 魂(Anima)에 관하여 Platon은 肉體와 嚴格히 分離하였는데 비하여 Aristoteles는 魂과 肉體를 密接한 關係로 보고 그 作用을 客觀的 觀察의 對象으로 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肉體에 대한 完全性이라는 魂, 혹은 生命의 根源으로서의 魂을 認定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生活體의 現象으로서의 魂 즉 혹은 認識主體로서의 魂을 認定하며, 이것을 心理學의 對象으로 하였다. 이런 면에서 Aristoteles의 心理學의 特徵은 現代 心理學者들이 Re-Né Descartes(1596-1650)의 靈肉 二元論을 拒否한 것처럼, 플라톤 안에서 배웠던 靈肉 二元論(Dualism)을 排擊한 점이라 하겠다.

魂(Anima)에 대한 Aristoteles의 입장은 精神의 發生的 有機的 進化觀과 비슷한 면을 보여준다. 원래 自然科學者였던 그는 生命體에 나타나는 어떤 進化 즉 下級生命에서부터 高級生命에 이르는 어떤 一連의 系列을 體驗하고 있었다. 그가 볼 때 各種 生命現象들의 痕迹은 그 一連의 現象들이 보여주는 現在의 完全性에서 서서히 接近되어 왔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래서 그는 生命의 原初的 作用으로 營養作用을 생각했다. 營養 또는 힘(energy)은 精神의 最初이며 이것에 의해서 生命이 움직이는 것이다. 보다 進化된 生命현상은 感覺의이다. 이 感覺은 原始的이고 根本的인 知覺形態이며 動物에 있어서 必要不可缺한 要素이다. 가장 進化된 生命現象은 人間에게서 나타내는데 그것은 思考와 推理作用을 하는 理性(nous)이다. 그래서 Aristoteles는 魂(nous)을 3段階로 본다. 1段階는 營養作用이고 2段階는 感覺作用이며 3段階는 理性作用이다.

그러므로 Aristoteles가 볼 때 人間은 心理學的으로도 動物과 반드시 一致되는 것은 아니다. 感覺을 갖는 動物에게도 欲求作用이 있으며, 그것은 快—不快의 感情을 일으킨다. 感覺의 知覺에 의하여 形成되는 表象能力을 動物도 갖는다. 그러나 理性的 推理에 의한 表象能力은 人間特有의能力으로 人間이 動物보다 本質적으로 優秀한 점은 理性이라는 靈魂의 한 部分을 갖기 때문이다. De Anima의 3권은 理性(nous)의 問題를 다루면서 그다지 科學的인 아닌 形而上學的인 問題로 깊이 接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根本背景은 魂의 心理—生理的(Psycho-physical)理論이며, Platon과는 달리 魂과 肉體의 서로 分離되어 왔던 두 領域이 좁혀지고 있다. 이런 이중적인 特徵 즉 哲學的이면서도 科學的인 接近은 De Anima안에 一貫되어 나타난다.

De Anima 1권에 나타나는 人間의 魂(Anima)

De Anima 1권에서 Aristoteles가 밝히고자 했던 점은 “魂이란 무엇이나?”다. 여기서 問題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人間의 魂(human soul)이다. 여기에 비하면 題目과 密接해 보이는 다른 主題들은 〈人間의 魂이 무엇이나?〉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Aristoteles는 다른 哲學者들이 흔히 빠져들듯 人間 魂에 대한 思辨的인 探究에만 制限시키지는 않았다(Mansion, 1978).

그는 魂에 대해서 確實한 知識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魂自體에 대해서 어떤 確實한 信憑性을 얻는다는 것은 제일 힘든 일이다.”(At Pervenire ad aliquam convictionem firmam circa ipsam, summae est difficultatis.) (Aristoteles, 402 a 12) 여기서 魂이라하지 않고 〈魂自體〉(ipsum)라고 한 것은 魂의 現象學的인 面뿐만 아니라 〈魂이란 무엇이나?〉의 本質的인 面까지 내포하며, 〈제일 힘든일〉(Summae difficultatis)이라고 最上級을 쓴 것은 이 問題가 얼마나 어려운 問題인가를 말해 준다.

당시에는 統一된 方法論이 不足한 狀態였다. 모든 存在를 다 같이 하나로만 보려던 Parmenides의 理論과 反對로 多數性和 變化만을 認定하려던 Herakleitos의

理論이 存在論的으로 對立되어 있었고 魂 問題에 있어서도 Platon과 같이 魂과 肉體를 個別로 보려는 二元論(dualism)이 우세하였다. 여기서 Aristoteles는 더욱 큰 어려움을 느낀다. “本質問題를 探究하는데 있어 그와 같은 어떤 單一하고 普遍的인 方法이 없으므로 우리의 作業은 더욱 더 힘들어진다.”(Sed si non existit ulla talis et communis methodus ad essentias inquirendas, adhuc difficiolor redditur labor noster.) (Aristoteles, 402 a 15)

그러나 魂에 대한 知識은 아주 價値있는 것이니, 魂이 가지는 高貴함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 知識이 自然世界를 理解하는데 重大한 寄與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魂은 生命體의 原理이기 때문이다. “魂에 대한 認識은 眞理 探究에 있어서 특히 自然을 理解하는데에 明白히 많은 寄與를 하고 있으니 그 理由는 魂은 生命體의 原理인 듯이 보여지기 때문이다.”(Praeterea cognitio animae ut communiter constat, plurimum confert ad quamcumque veritatem-et praesertim ad [scientiam] naturae-acquirendam, cum [anima] sit quasi principium rerum, quae vivunt.) (Aristoteles, 402 a 5)

Aristoteles에게 궁금한 것은 實物의 營養作用, 動物의 感覺作用, 人間의 理性作用등 魂 또는 生命體에 나타나는 어떤 進化的인 系列을 각각 같은 차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차원으로 볼 것인가의 問題였다. 그는 下級生命에서 高級生命에 이르는 어떤 一連의 系列과 그 差異를 體驗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일은 動物의 概念이 하나인 것처럼 魂의 概念도 單一한 것인지, 아니면 말, 개, 人間, 神의 概念이 다양한 것처럼 각 種類에 따라서 魂의 概念도 역시 달라져야 할 것인지를 明白히 해야한다는 점이다.”(Et summo opere cavendum est, ne in obscuro maneat, utrum una sit animae definitio-sicut [una est] definitio animalis-an vero diversapro unaqueque [anima]-sicut [diversa est definitio] equi, canis, hominis, dei.) (Aristoteles, 402 b 5)

魂의 問題에 있어서 Aristoteles는 魂의 個體的 實體를 重大한 問題로 取扱하였다. 個體的 實體는 自主體(suppositum)와 같은 뜻으로 人格說明에 있어서 西歐의 傳統哲學은 自主體의 概念을 重視하여 왔다. 이 人格의 個別性에서 實在의 〈自立性〉〈完全性〉〈不讓渡

性)이 可能하게 되며, 이 概念이 弱화될 때 個人의 人格이 集團의 人格속에 吸收되어 否定되거나 弱화될 수 있으며, 그 結果로 個人을 社會構成的인 한 部分品으로 밖에 보지 않는 全體主義의 傾向이 支配的인 일 수 있다. “魂이 나눌 수 있는 것인지 나눌 수 없는 것인지 모든 魂들이 同質의인지 아닌지가 물론 考察되어야 한다.”(Considerandum est etiam, utrum divisibilis sit an indivisibilis, et utrum eiusdem sit speciei nec ne omnia anima.) (Aristoteles, 402 b 1)

Aristoteles는 魂의 問題도 變化의 問題와 같은 系列에서 본다고 생각된다. 個體안에 나타나는 魂은 우선 매순간 變化되는 作用들로 나타난다. 그는 우선 經驗的으로 否定할 수 없는 魂의 作用들을 認定한다. 그러나 魂에는 매순간 變化하는 그 作用들의 集合만은 아닌 무엇이 있다. 그것은 魂의 作用들이 그것에 의해서 說明되는 魂의 本質 또는 實體로 이것은 西歐의 傳統 철학의 人格論에 重要한 要素였다. Descartes이후 人格의 實體性이 弱화되자 人格을 知覺들의 묶음으로만 보려는 傾向이 두드러졌다. “우리는 探究目的은 먼저 魂의 本質 또는 主體를 秩序있게 把握하고 理解하는 것이며, 이어서 魂에 隸屬된 모든 것을 理解하는 것이다. 그런데 魂에 隸屬된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固有한 魂 자체의 作用들로 나타나고 어떤 것들은 固有한 魂이 있기 때문에 動物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Nostrae inventionis est scientifice inquirere atque cognoscere primo naturam ejus atque substantiam, deinde omnia, quae ei conveniunt, et quorum alia videntur esse affectiones propriae [solius] animae, alia autem etiam animalibus inesse videntur et quidem ratione eiusdem animae) (Aristoteles, 402 a 7)

魂의 作用들은 情緒的인 作用들로 憤怒, 良順함, 恐怖, 勇氣, 同情心, 기쁨, 憎惡, 사랑 등등이다. Aristoteles는 魂과 肉體를 密接한 關係로 보고 魂의 이 作用들이 肉體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또 그것들은 肉體없이는 入力도 出力도 不可能하다. “魂의 作用자체들 즉 憤怒, 良順함, 恐怖, 同情心, 勇氣, 그위에 기쁨, 사랑, 憎惡까지도 모두 肉體와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진다.”(ipsae affectiones animae:ira, mansuetudo, timor, misericordia, audacia, insuper gaudium ac tandem amor atque odium videntur omnes esse cum

corpore) (Aristoteles, 403 a 15) “魂의 많은 作用들을 살펴보면 魂이 肉體없이 作用들 중에 어떤 것도 入力하거나 出力하는 것이 不可能함이 明白하게 나타난다.” (Quod plurimas [affectiones] attinet, res magnifeste apparet [animam] non posse sine corpore ullam earum pati nec producere.) (Aristoteles, 403 a 5)

人間 魂의 가장 固有한 作用으로 보여지는 思考까지도 肉體없이는 存在할 수 없을 것이다. 思考 自體도 一種의 心象이며 心象없이는 存在할 수 없는데 心象은 역시 肉體의 作用과 密接하다. 여기서 Aristoteles가 魂과 肉體를 嚴格히 分離한 Platon과는 달리 思考까지도 肉體와 密接히 連結시키고, 思考작용도 心象의 一種으로 본 것은 그가 얼마나 自然현상에 대한 예민한 觀察者였는가를 말해 준다. “思考는 魂의 가장 固有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思考自體도 一種의 心象의 形態로 있고 心象없이 存在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Quod] maxime videtur proprium [animae, est] intellectio: sed si etiam ipsa est quaedam species phantasiae vel [saltem] non est sine phantasia, nec ipsa poterit sine corpore existere.) (Aristoteles, 403 a 7)

心理學者는 科學者로서 思辯論者와는 달리 魂의 作用을 定義함에 있어 抽象적이고 觀念적인 說明만으로는 不足하다. 心理學者의 研究方法은 客觀的 觀察에서 出發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生理心理學的인 基礎를 갖고 魂의 問題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魂의 作用 중의 하나인 憤怒라고 하면 〈복수하려는 願意〉 등의 觀念적인 解釋이 아니라 憤怒할 때에 야기되는 身體的 變化·心臟의 박동과의 關係까지도 考慮한 組織的 定義를 내려야 한다. “사실 科學者와 思辯論者는 魂의 作用을 定義함에 있어 서로 달라야 할 것이다. 예컨대 憤怒라고 하면 後者의 경우는 〈복수하려는 願意〉

나 또는 그와 비슷한 定義를 할지 모르나 前者는 憤怒를 〈心臟 周圍의 血液이나 따뜻한 (어떤) 要素들이 끓어올라서 되는 것〉이라고 定義해야 할 것이다.” (Re vera enim phisicus et dialecticus diverso modo definirent unamquampque [animae affectionem] v.g. iram: ultimus enim [definiret eam]: 〈desiderium vindictae〉 vel aliquid eius modi, primus autem: 〈sanguinis vel elementi calidi ebullitionem circa cor〉) (Aristoteles, 403 a 30)

참고문헌

- 金聖泰 (1982). 成熟人格論. 서울 高麗大學校 出版部, pp. 24-27.
- 鄭義采 (1975). 形而上學. 서울 성바오로 出版部, p.221.
- Aristoteles (1956). *De Anima*. S.I.Siwiek, Universitatis Gregoriana, Rome.
- Hall, C. S. & Lindzey, G.(1978). *Theories of personality* (3rd ed.). New York: John Willey & Sons, p.342.
- Jaeger (1962). *W. Aristotel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p.431-437.
- Kaplan, J. D.(1960) *The Pocket Aristotle*. New York: the Pocket Library, pp.9-10.
- Mansion, S.(1978). *Aristotle on mind and the sense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5-27.
- Ross, W. D.(1955). *Aristotle selectio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pp.256-274.
- Stern, W.(1938). *Allgemeine psychologie auf personalistischer Grundlage Engl. Translation by H. G. Spoerl, General psychology, New York: Macmillan, p.62.*

The Traits of Mature Personality in the De Anima

Sang-Kyoon Kim

Catholic University

It appears that for western psychologists the traits of mature personality is very important because of its noble dignity. The problem which Aristotle proposes to examine in the De Anima, no doubt is: What is the soul? For him, the first thing is to know what the essence of the soul is. Aristotle is well aware of the fact that the knowledge of the soul is of the greatest value because of its dignity, and that it is always difficult to look for the essence of something because for that there is no common method. The human soul is in some sense the principle of animal life, which is acting through the body. But for him, there i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oul itself and the soul in its function. Major determinants of human soul seem to be a set of inseparability, integrality and incommunicability.